

## 漢文 學校文法の 品詞分類와 名稱

鄭 順 泳\*

### <국문초록>

본 논문은 漢文의 品詞분류기준과 名稱에 대한 연구다. 漢文科에서 品詞연구는 중국의 『馬氏文通』에서 實詞와 虛詞를 통하여 품사를 분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후 많은 문법학자들이 품사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 學校文法은 學問文法이론의 체계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문법에 대해 많은 분류기준과 명칭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분류가 달라 품사이해에 혼란을 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인 구어 문법에서 도입한 품사론을 직접한문에 대입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품사분류는 의미와 형태·기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문에서는 형태변화가 없어 형태를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의미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虛詞에 있어서 모순으로 보이며, 기능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실사에 있어서 모순을 보이고 있어 단일 기준으로 품사분류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문의 품사분류는 한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實詞와 虛詞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의 실사와 허사의 구분기준이나 개념이 분명치 않아 실사와 허사를 기준으로 삼기에도 모순이 있었다. 따라서 실사와 허사의 변별기준을 기존에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에서 문장출현에 있어서 자립적으로 문장성분을 이루느냐의 여부에 따라 품사분류를 하면 명료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漢文科 學校文法の 기준에 대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성신여대 강사 / 7743jsy@hanmail.net

첫째로, 漢文科에서 品詞은 實詞과 虛詞를 기준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實詞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며 자립적으로 의미를 실현하여 문장성분을 이루는 자립성분이며, 虛詞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실사에 의존적으로 출현하여 문장성분을 이루는 의존성분이다. 즉 虛詞은 실사와 실사를 이어주고 실사의 의미실현을 돕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實詞은 다시 語詞의 의미에 따라 名詞・代名詞・動詞・形容詞・副詞로 분류하며, 虛詞은 문법기능에 따라 介詞・接續詞・助詞・感歎詞로 분류하여 9품사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로, 품사 명칭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代名詞, 介詞, 接續詞, 助詞, 感歎詞를 중국학자와 우리나라 학자들의 견해와 국어문법과 관련하여 타당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學校文法에서 代名詞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명칭이나, 漢文科에서도 명사를 지칭할 뿐 만 아니라 다른 語詞나 語句・語節 등도 대신 지칭하여 그 의미범위가 넓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혼란을 줄이는 입장에서 代名詞의 명칭을 쓸 것을 제안한다. 介詞는 우리 국어에 없는 명칭이나, 介詞의 개념과 前置詞의 명칭상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 중국학자들의 명칭에 따라 介詞의 명칭을 쓸 것을 제안한다. 接續詞는 타 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接續詞의 개념과 같이 하고 있으므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接續詞의 명칭을 쓸 것을 제안한다. 助詞는 국어문법에도 있는 명칭으로 국어와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助詞의 명칭을 쓸 것을 제안한다. 感歎詞는 정서감정을 소리로 표현하는 품사로 感歎詞의 명칭을 쓸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漢文科가 독립교과로 된지도 30년이 넘었다. 漢文科에서 학습자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볼

때, 빠른 시일에 漢文科 學校文法の 통일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學問文法の 체계화가 정립이 되었을 때 학습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漢文科 學校文法은 이러한 學問文法の 기초위에서 빠른 시일 안에 체계적인 문법통일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 학교문법, 품사, 실사, 허사

## 目 次

### I. 序論

### II. 品詞分類

#### 2-1. 品詞分類基準의 問題

#### 2-2. 品詞分類

### III. 名稱의 問題

#### 3-1. 代名詞

#### 3-2. 介詞

#### 3-3. 接續詞

#### 3-4. 助詞

#### 3-5. 感歎詞

### IV. 結論 및 提案

#### <參考文獻>

## I. 序論

中・高等學校 學校教育에서 학생들의 漢字・漢文 독해력 향상을 위해 한문의 문법적 특성을 잠정적으로 규정하여 체계화 한 것을 學校文法 (school grammar) 또는 規範文法(prescriptive grammar)이라 할 수 있다.

漢文科는 漢字・漢字語・漢文을 익혀 언어생활에서 바르게 읽고 쓰며, 漢文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漢文教育은 1972년 漢文科가 독립교과가 되면서 漢字・漢文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문교육에 관련된 교수・학습의 방법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독해력 신장에 기본이 되는 문법교육에 있어서는 아직 학교문법의 통일(안)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現行 漢文교과서는 문법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교수·학습 면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변하는 사회에 많은 학문을 접하게 되는 세대들에게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漢文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대의 세대들에게 漢字·漢文의 독해력 신장을 위해 쉽고 흥미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는 일은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수용한 이래로 구어와 문어를 달리 사용하였고, 이를 통합적으로 이뤄내려는 노력을 해왔다.<sup>1)</sup> 한글이 창조된 후에도 우리 선조들은 漢字·漢文으로 공공생활이나 사적의사소통을 하여왔다. 현재에도 漢字·漢文은 우리 언어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래에 있어서 漢字·漢文의 체계적인 연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교육 현장실정에 맞게 漢文科의 교수·학습 방법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

漢字·漢文의 독해력 향상을 위한 연구서로 한문 해석을 통하여 해석상의 난점을 다룬 『漢文解釋法研究』<sup>2)</sup>와 품사적 특성, 문장의 형식, 통사적 기능 등의 제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漢文解釋方法』,<sup>3)</sup> 교수·학습방법 면에서 『한문과 교재연구 방법론』<sup>4)</sup> 등의 연구는 현장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특히 學校文法에서 品詞<sup>5)</sup>에

1) 한자를 빌어 우리 구어에 맞도록 표기했던 誓記式 표기나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하여 우리 구어를 표기 했던 鄉札, 吏讀 그리고 口訣(현도) 등은 우리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어서 한자에 의존하여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을 볼 수 있다.

2) 崔相翼, 『漢文解釋法研究』,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3) 金容傑, 『漢文解釋方法』, (서울 敎學社, 2003).

4) 安載澈, 『한문과 교재연구 방법론』, (서울 박이정, 2004).

5) 학교문법에서의 품사분류와 내용에 대한 연구로 安載澈의 「學校 漢文文法の 品詞 分類와 그 內容에 관한 問題」(『漢文教育研究』, 韓國漢文教育學會, 2001.12)의 연구가 있다.

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교과서에는 한자의 짜임이나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식 등에 비해 품사영역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설명밖에 하고 있지 않으며, 각 품사들의 개념과 명칭사이의 혼란 등은 문법교육을 의심하게 한다. 한문과 현행교과서에서 품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품사분류기준에 모순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문의 품사분류문제가 어렵다 하여도 일반 다른 언어와의 보편적 체계문제에서 한문과의 품사문제를 도외시 할 수는 없다.

漢文科에 있어서 品詞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馬建忠(1845-1900)의 『馬氏文通』(1898)에서 처음 품사분류가 시도된 이래 많은 문법학자들이 품사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분류가 달라 품사이해에 혼란을 야기 하고 있다. 이는 印歐語 문법에서 도입한 품사론을 직접 한문에 대입하여 교육 효과를 얻으려는 성급한 의욕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구서에 의하면 품사분류는 意味와 形態・機能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문에서는 형태변화가 없어 形態를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意味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虛詞의 처리가 어렵다. 또한 機能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實詞와 虛詞<sup>6)</sup>를 단일 기준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문의 품사분류는 한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사와 허사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의 실사와 허사의 구분기준이나 개념이 분명치 않아 실사와 허사를 기준으로 삼기에도 모순이 야기된다. 그래서 기존의 실사와 허사의 意味基準에서 文法機能을 추가하여 변별기준을 설정하면 품사분류를 명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漢文科 學校文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품사 분류기준의 문제와 명칭문제를 살펴 학교문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6) ‘字’는 형태의 최소 단위, ‘詞’는 최소의미단위로 虛詞는 개개 字에 대한 혼고학적 연구가 아니라 언어 체계전체와 관련된 문법적 연구임을 나타낸다.(金榮九「虛詞의 概念的 性格과 그 範圍」中語中文學 第八輯)그러므로 詞는 품사 구별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II. 品詞分類

### 2-1. 品詞分類基準의 問題

漢文科에서 品詞분류는 중국의 『馬氏文通』에서 처음 시도된 이래 많은 학자들이 품사에 대하여 연구해 왔다. 지금 까지 학자들이 품사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던 意味와 機能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意味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한 『馬氏文通』에서 보기로 한다.

“字는 각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字는 하나의 뜻에 그치지 않는다. 옛사람이 말한바 ‘문장을 보고 뜻을 새긴다’는 것이다. 뜻이 같지 않아 그 류도 다르다. 그러므로 ‘字類’는 그 뜻에 따라 분류할 따름이다.”<sup>7)</sup>

“무릇 字가운데 풀이할 만한 이치가 있는 것을 實字라 하고, 풀이할 만한 이치가 없고 오직 실자의 정태를 돕는 것을 虛字라 한다.”<sup>8)</sup>

『馬氏文通』은 인구어 문법학에 입각하여 學校文法을 체계화시키면서도 인구어 문법학에서 찾아 볼 수 없는 實詞와 虛詞라는 전통적 개념을 도입하여 품사를 연구하고 있다. 漢文科에서 품사분류는 형태지표를 근거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품사분류 기준을 실사와 허사로 삼아 분류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쉽게 품사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점이 『馬氏文通』이후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品詞를 실사와 허사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馬氏文通』에서는 ‘字’를 문장의 최소 意味單位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소의미 단위인 ‘字’의 意味를 기준으로

7) 馬建忠, 『馬氏文通』, (商務印書館, 1998), 23쪽, “字各有義 而一字有不止一義者 古人所謂 ‘望文 生義’者此也 義不同而其類亦別焉 故字類者 亦類其義焉耳”

8) 馬建忠, 앞의 책, 19쪽, “凡字有事理可解者曰實字 無解而惟以助實字之情態者曰虛字”

실사와 허사를 구분한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봐도 초학자에게 漢字・漢文의 독해력 신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장의 최소단위의 실질적 의미를 기준으로 실사와 허사의 개념을 규정한다 해도 통사기능에 대한 설명은 일관된 체계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적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청된다. 실사와 허사의 문제는 『馬氏文通』외에 『中國語法理論』<sup>9)</sup>, 『中國文法講話』<sup>10)</sup>등에서 語詞(최소의미단위)單位의 意味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文法的機能을 기준으로 분류한 학자는 黎錦熙(1890-1978)의 『新著國語文法』(1924)서론에서 볼 수 있다.

“국어의 품사는 詞 자체로는 구별할 수 없다. 반드시 문중에서의 위치, 직무 기능을 봐야 비로소 그 詞가 어떤 종류의 품사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sup>11)</sup>

『新著國語文法』의 품사분류기준은 문장 안에서만 품사가 정해지고 문장을 떠나서는 품사분류를 할 수 없으며, 문장 중에서의 기능에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다. 문장 안에서의 품사분류를 각 품사자체의 의미자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설정하고 있는 점은 인국어문법과 크게 다른 점으로 한문의 언어적 특성이 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新著國語文法』의 품사분류는 實體詞(名詞,代名詞), 述說詞(動詞), 區別詞(形容詞,副詞), 關係詞(介詞,連詞), 情態詞(助詞,嘆詞)등 류개념을 통하여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의미에 따른 분류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新著國語文法』은 學校文法에서 학습자에게 고무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론적 근거가 분명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趙元任(1892-1982)도 『中國話的文法』(1987)<sup>13)</sup>에서 기능에 의한 품사분류의 기

9) 王 力, 『中國語法理論』, (王力文集 卷1, 山東教育出版社, 1984), 20쪽.

10) 許世瑛, 『中國文法講話』, (開明書店, 1966), 29-32쪽.

11)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臺灣 商務印書館, 1974), 6쪽.

12) 黎錦熙, 앞의 책 6쪽, “國語의 詞類 在詞的本體上(即字的形體上) 無從分別: 必須看他在句中的位置・職務 才能認定這一個詞是屬於何種詞類: 這是國語文法和西文法一個人不相同之點”



준을 말하며 體詞・動詞・其他詞로 분류하였는데, 『新著國語文法』과 『中國話的文法』의 품사 분류기준은 실사와 허사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語詞의 문장 중에서의 위치와 기능 즉 통사 상에 나타나는 성분에 의하여 품사를 분별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점이다. 또한 현대의 대학자 周法高는 『中國古代語法』에서 實詞는 문장의 주어, 술어가 되며, 虛詞는 문장의 주어와 술어로 쓰일 수 없다<sup>14)</sup>고 하여 實詞의 개념범주를 비교적 명료하게 설명하였으나 虛詞에 대하여는 통사기능에 따라 선명하게 정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품사의 분류는 어떤 문법적 기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學校文法에서 統辭機能에 의한 품사분류는 어려운 문제로 파악 하였다. 실사와 허사의 개념규정이 단순하고, 엄밀성이 결여되었으며 통사기능의 측면을 모호하게 學校文法에 그대로 적용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馬氏文通』이후 많은 학자가 실사와 허사의 개념규정을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실사와 허사의 의미규정을 문법적 기능을 추가하여 논의한 학자가 있다. 즉, 金兆梓(1887-1975)의 『國文法之研究』(1922)가 종래의 실사와 허사의 개념을 문장에 출현 여부, 즉 자립적으로 출현하느냐 의존적으로 출현하느냐의 여부로 실사와 허사의 개념을 연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5)</sup> 최근학자 陳望道도 『文法簡論』(197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3) 趙元任, 『中國話的文法』, (學生書局, 1987), 73-106쪽, 251-406쪽 참조 (安載徹「漢文教育에 있어서 品詞 分類 및 用語問題」, 『한문교육연구』 第10號, 1996. 37-39쪽 참조 재인용) “품사분류의 기준은 句文構造方法으로 판단해야 되며, 단어가 그 구문에서 차지하는 위치 속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어떠한가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합리적인 품사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4) 周法高, 『中國古代語法(造句篇)』, (台聯國風出版社, 1972), 22쪽. “虛詞的特點是通常不能作句子的主語或述語而實詞則否……牠們的數目是有限的可以列舉的 而通常的名詞 謂詞的數目是一文中所謂的法書中是不可列舉的只能在辭典中一一列舉”

15) 馬松亭 編著, 『漢語語法學史』, (安徽 教育出版社, 1986), 46-47쪽. “金兆梓『國文法之研究』…實字 凡是表‘意義的最後獨立單位’的字, 是實字…虛字非表‘意義的最後獨立單位’”

“문법상 詞를 허사와 실사로 구분함에 반드시 조직상 즉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기능으로 보아 실사는 조직상에서 독립자주적일 수 있고 또한 단독으로 문장성분을 이룰 수 있어 自立詞라고 할 수 있으며, 허사는 조직상에서 독립자주적일 수 없고 반드시 실사에 의지하여야만 비로소 한 단위 성분을 이룰 수 있어 他依詞라 할 수 있다.”<sup>16)</sup>

『文法簡論』은 실사와 허사의 개념을 문장에 자립적으로 또는 의존적으로 출현하느냐는 기능에 따라 체계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대의 대부분 학자가 意味를 기준으로 삼거나 實詞는 의미에, 虛詞는 문법기능에 기준을 두어 논의 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타당한 분류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漢文科에서는 품사분류기준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實詞와 虛詞의 개념을 學校文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실사와 허사의 변별기준을 기존에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에서 문법기능을 추가하여 문장 출현에 있어서 자립적으로 문장성분을 이루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명료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될 수 있어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sup>17)</sup>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漢文科 學校文法에서 품사분류는 實詞와 虛詞를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實詞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며 단독으로 의미를 실현하여 문장성분을 이루는 자립성분이며, 虛詞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실사에 의존적으로 출현하여 문장성분을 이루는 의존성분이다. 다시 말하면 虛詞는 실사와 실사를 이어주고 실사의 의미실현을 돕는 기능을 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16) 陳望道, 『文法簡論』, (上海教育出版社, 1997), 63쪽. “文法上詞分虛實必須從組織上着眼 即從功能上區分 依照功能觀點 實詞是在組織上能够獨立自主的 也就是說他能够單獨做句子成分的 可以稱謂自立詞 虛詞是在組織狀不能獨立自主的 必須依附實詞在能成一節次的 可以稱謂他依詞”

1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拙稿 「‘文法成分’概念的 成立과 그 分類에 대한 考察」, (『漢文古典研究』 第七集, 2003, 7) 참조

## 2-2. 品詞分類

다음은 중국학자들의 품사분류와 명칭들이다.

馬建忠 『馬氏文通』 19) (9)	實字			虛字		
	名字,代字,動字,靜字,狀字			介字,連字,助字,嘆字		
陳承澤 『國文法草創』 20) (9)	實字			虛字		
	名字,代名字,動字,象字,副字			介字,連字,助字,感字		
黎錦熙(9) 『新著國語文法』 <sup>21)</sup>	實體詞	述說詞	區別詞	關係詞	情態詞	
	名詞(量詞), 代名詞	動詞(助動詞,同動詞)	形容詞,副詞	介詞,連詞	助詞,嘆詞	
呂叔湘(7) 『中國文法要略』 <sup>22)</sup>	實義詞			補助詞		
	名詞,動詞,形容詞			限制詞,指稱詞,關係詞,語氣詞		
王力(11) 『中國現代語法』 <sup>23)</sup>	理解成分			語法成分		
	實詞			半實詞	虛詞	半虛詞
	名詞,單位名詞,數詞,動詞,助動詞,形容詞			副詞	聯結詞,語氣詞	代詞,繫詞
趙元任(15) 『中國話的文法』 <sup>24)</sup>	體詞		動詞	其他詞		
	名詞,專有名詞,處所詞,時間詞,D-M複合詞,區別詞,量詞,方位詞,代名詞		動詞(形容詞)	介詞,副詞,連詞,助詞,嘆詞		
楊伯峻(10) 『文言文法』 <sup>25)</sup>	實體詞	述說詞	區別詞	關係詞	語助詞	
	名詞,代詞	動詞	形容詞,副詞	介詞,連詞	語氣詞,嘆詞,小品詞	
劉景農(8) 『漢語文言語法』 <sup>26)</sup>	實詞			虛詞		
	名詞,動詞,形容詞			代詞,副詞,介詞,連詞,語氣詞		

18) 金容傑의 『漢文解釋方法』에서는 실사와 허사의 언급이 없으나 품사의 정의가 상당히 자세하며, 실사와 허사를 단독으로 의미실현의 여부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다. 기존의 의미기준에 통사기준을 함께 설명한 것으로 분류기준을 명확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許世瑛(7) 『中國文法講話』 <sup>27)</sup>	實詞		虛詞
	名詞,形容詞,動詞,限制詞(副詞) 指稱詞		關係詞,語氣詞
周法高(13) 『中國古代語法』 <sup>28)</sup>	實詞		虛詞
	名詞,謂詞,代詞,數詞,助名詞,方位詞,助謂詞,狀詞		副詞,聯詞,介詞,嘆詞,助詞
劉誠·王大年 『語法學』 <sup>29)</sup> (11)	實詞		虛詞
	名詞,動詞,形容詞,數詞,量詞		代詞,副詞,介詞,連詞,助詞(語助詞),嘆詞
易孟醇 『先秦語法』 <sup>30)</sup> (10)	實詞	半實半虛詞	虛詞
	名詞,動詞,形容詞,數量詞	代詞,副詞	介詞,連詞,助詞,感情詞
黃六平 <sup>31)</sup> 『漢語文言語法綱要』(9)	實詞		虛詞
	名詞,代詞,動詞,形容詞		副詞,介詞,連詞,助詞,歎詞

위의 분류를 보면 대부분의 학자가 품사를 實詞와 虛詞로 크게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 7품사에서 15품사로 분류하고 있다. 『新著國語文法』에서는 實體詞, 述說詞, 區別詞, 關係詞, 情態詞로 나

19) 馬建忠, 앞의 책, 19-23쪽.

20) 陳承澤, 『國文法草創』, (商務印書館, 1982), 15-16쪽.

21) 黎錦熙, 앞의 책, 5-12쪽.

22) 呂叔湘, 『呂叔湘文集』, (商務印書館, 1993), 16-18쪽.

23) 王力, 『中國現代語法』, (『王力文集』, 山東教育出版社, 1985) 44쪽.

24) 趙元任, 앞의 책, 201쪽.

25) 楊伯峻, 『文言文法』, (中華書局, 1963), 6-11쪽.

26)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23쪽.

27) 許世瑛, 『中國文法講話』, (開明書店, 1980), 29-32쪽.

28) 周法高, 앞의 책, 22쪽.

29) 劉誠·王大年, 『語法學』, (湖南人民出版社, 1984), 27쪽.

30) 易孟醇, 『先秦語法』(湖南教育出版社, 1989), 63-70쪽.

31)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華正書局有限公司, 민국70), 16-20쪽.

누고 있고,<sup>32)</sup> 『中國文法要略』은 實義詞과 補助詞로 나누고 있으며, 『中國現代語法』은 理解成分과 文法成分으로 나누고 있으나, 이는 實詞과 虛詞를 別稱한 것이다. 다만 王力이 ‘理解成分’을 實詞로 ‘文法成分’을 다시 半實詞, 虛詞, 半虛詞로 구분한 것이 특이하다. 모든 학자들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名詞, 動詞, 形容詞는 實詞에 포함시켰고, 介詞, 接續詞, 助詞, 感歎詞는 虛詞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代名詞와 副詞의 실사와 허사의 구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품사설정에 있어 數詞와 量詞은 數量詞에 따라, 품사를 9품사, 10품사 또는 11품사로 보고 있다. 『馬氏文通』은 量詞와 數詞를 形용사 안에 넣어서 9품사로 설정하였고<sup>33)</sup>, 『先秦語法』은 數詞와 量詞를 數量詞로 통합하여 10품사로 하였으며<sup>34)</sup>, 『文言文法』은 量詞를 명사 안에 넣고 數詞는 形용사 안에 넣은 대신 小品詞라는 새로운 품사를 설정하여 10개의 품사를 만들었다.<sup>35)</sup> 『中國文法要略』<sup>36)</sup>과 『中國文法講話』<sup>37)</sup>는 數詞와 量詞를 모두 代名詞 안에 넣어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代名詞와 副詞에 있어서 實詞과 虛詞의 구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王力은 代名詞에 대하여 “그것들 자체는 허사인데, 그들이 대체된 것은 오히려 實詞다”라 하여 代名詞를 半虛詞로서 허사에 분류한 점이 특이하다.<sup>38)</sup> 이는 단지 語詞단위의 의미만을 가지고 분류한 것으로 의미자질에 따라 일차적 분류가 가능하지만 대명사는 자립성분으로서 문법기능상 實詞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副詞는 상당히 대립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副詞는 半實詞라 하여, 그것들이 역시 程度, 範圍, 時間, 否定作用 등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고, 순수허사로 보기는 어렵다.”<sup>39)</sup>라 하여 副詞를 ‘半實詞’로서 虛詞로 보았다. 이는 虛詞임을 부

32) 黎錦熙, 앞의 책, 5쪽.

33) 馬建忠, 앞의 책, 121-123쪽.

34) 易孟醇, 앞의 책, 69쪽.

35) 楊伯峻, 앞의 책, 45, 79, 151쪽.

36) 呂叔湘, 앞의 책, 18쪽.

37) 許世瑛, 앞의 책, 31쪽.

38) 王力文集, (『漢語語法綱要』, 山東教育出版社, 1985), 189쪽. “它們的本身是虛詞 而它們所替代的却是實詞”

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같은 의미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다른 분류를 보이고 있다. 副詞은 다른 허사와는 기능을 달리하며 의미 자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문법기능상 부속성분으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부사는 實詞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은 한국학자들의 품사분류와 명칭이다.(가나다순)

①金容傑 『漢文解釋方法』(9)	名詞,代名詞,動詞,形容詞,副詞,介詞,接續詞,助詞,感歎詞	
②安載澈(10) 『한문과교재연구방법론』	名詞,代詞,數詞(量詞포함),動詞,形容詞,副詞,介詞,接續詞,語助詞,感歎詞	
③梁光錫 『漢文文法論』 <sup>40)</sup> (10)	實詞	虛詞
	體言:名詞,代名詞,數詞 用言:動詞 修飾言:形容詞,副詞	關係言:接續詞,介詞 語氣言:助詞 獨立言:感歎詞
④崔相翼 『漢文解釋方法論』 (10)	實辭	虛辭
	名詞,代名詞,動詞,形容詞	副詞,介詞,連詞,語助詞,感歎詞,助述詞

각 학자들의 하위분류를 보면 더욱 분명한 체계를 볼 수 있다.

名詞	金① 普通, 固有, 抽象, 時間・方位, 數詞, 量詞 安② 完全:固有, 普通, 物質, 集合, 抽象, 不完全:被飾名詞 <sup>41)</sup> (者,所) 梁③ 完全:普通, 固有 不完全:事物單位不完全(所,者), 數量單位不完全 崔④ 固有, 普通, 數量
代名詞	金① 人稱代名詞: 一人稱(평칭,겸칭), 二人稱(평칭,존칭), 三人稱, 不定稱, 人稱複數, 指示代名詞, 疑問代名詞, 被修飾代名詞(所, 者)

39) 王力文集, 앞의 책, 189쪽. “副詞可認爲半實詞 因爲它們還能表示程度, 範圍, 時間, 否定作用等 和純虛的字不同”

40) 梁光錫, 『漢文文法論』(서울 關東出版社 1999), 222쪽.

	<p>安② 人稱代詞:一人稱, 二人稱, 三人稱, 事物代詞:近稱, 遠稱代詞, 疑問代詞:人物, 事物, 不定稱代詞</p> <p>梁③ 人稱代名詞:一人稱, 二人稱, 三人稱, 事物代名詞(근칭, 중칭, 원칭, 부정칭), 疑問代名詞(사람, 사물)</p> <p>崔④ 人稱代名詞:一人稱, 二人稱, 三人稱, 指示代名詞, 疑問代名詞</p>
動詞	<p>金① 完全自動詞, 不完全自動詞, 完全他動詞, 不完全他動詞, 連繫動詞, 存在動詞, 助動詞(가능, 의지, 당위)</p> <p>安② 自動詞, 他動詞, 助動詞, 同動詞</p> <p>梁③ 本動詞, 助動詞, 繫詞</p> <p>崔④ 活動動詞, 意念動詞, 存在動詞, 連系動詞</p>
形容詞	<p>金① 性質, 狀態, 擬態·擬聲, 疑問</p> <p>安② 一般, 特殊 疑問</p> <p>梁③ 一般, 特殊, 疑問</p> <p>崔④ 特殊形容詞포함(難, 易, 多, 少, 鮮 등)</p>
副詞	<p>金① 程度(정도가 심한 경우, 정도가 약한 경우), 範圍(전체, 부분), 性狀, 時間(과거, 현재, 미래, 처음, 끝, 기타), 頻度, 疑問, 反語, 否定, 共同</p> <p>安② 程度, 範圍, 性狀, 時間, 接續, 疑問, 反語</p> <p>梁③ 程度, 範圍, 性狀, 時間, 接續, 疑問, 反語, 謙讓, 否定</p> <p>崔④ 程度, 範圍, 情態, 時間, 表數, 謙敬, 語氣, 否定</p>
數詞	<p>安② 기수사, 서수사, 양사</p> <p>梁③ 기수사, 서수사</p>
介詞	<p>金① 時間, 場所, 道具, 原因, 目的, 對象, 比較, 被動</p> <p>安② 時間, 場所, 原因, 方法, 所有(之)</p> <p>梁③ 時地, 原因, 方法</p> <p>崔④ 時地, 原因, 方法, 領攝(之,) 比較</p>
接續詞	<p>金① 병렬관계: 對等, 承接, 逆接, 選擇, 주종관계: 假定, 讓步, 因果, 抑揚</p> <p>安② 竝列, 承接, 選擇, 逆接, 讓步, 因果, 假設</p> <p>梁③ 從屬, 等位, (之)</p> <p>崔④ 竝列, 順承, 選擇, 逆接, 讓步, 假設, 因果連詞</p>

助詞	金① 構造助詞(之) 語氣助詞: 發語, 提示・停頓, 陳述, 限定, 感歎, 推測, 疑問, 反問 安② 發語, 提示・停止, 敘述, 疑問, 命令・感歎語助詞 梁③ 發語, 提示 및 停頓, 敘述, 疑問, 命令 및 感歎 崔④ 停止形, 終結形, 限定形, 疑問形, 感歎形語助詞
感歎詞	金① 讚美, 哀痛, 驚歎, 憤怒 安② 梁③ 喚情, 呼應 崔④
助述詞	崔④ 可能, 當爲, 使役, 被動, 否定, 未來助述詞

위의 분류를 살펴보면 數詞 量詞의 분류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金①과 崔④에서는 수사와 양사를 명사의 하위분류로, 安②에서는 수사(양사포함)를 독립품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梁③에서는 양사를 수량단위명사로 명칭하여 명사의 하위분류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사는 독립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所, 者를 金①에서는 대명사의 하위분류로 被修飾代名詞로 명칭하고 있으며, 安②에서는 명사의 하위분류로 보고 被飾名詞로 명칭하고 있으며, 梁③에서는 사물단위불완전명사로 보고 있다. 代名詞에서 安②에서는 疑問代名詞를 疑向代詞의 명칭을 쓰고 있다. 金①에서는 인칭의 복수도 설정하고 있다. 動詞에 있어서는 連繫動詞의 명칭이 同動詞나 繫詞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며, 金①과 崔④는 存在動詞를 따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助動詞에서 崔④에서는 助述詞라 하여 독립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형용사에서는 金①에 擬聲・擬態형용사를 하위분류하고 있다. 副詞, 介詞, 接續詞, 助詞, 感歎詞의 하위분류에 있어서 金①은 상당히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助詞의 분류에서 구조조사와 어기조사로 분류하고 있다. 之의 품사설정에 있어서 金

41) 被飾名詞는 『한문과 교재연구방법론』(安載澈)에서만 사용한 명칭임. 『中國古代語法(稱代編)』(周法高)은 代詞性助詞라 명칭하고(앞의 책, 368쪽), 『漢文解釋方法』(金容傑)은 被修飾代名詞라 명칭하고 있다.(앞의 책, 191쪽)



①은 구조조사로 설정하고 있으며<sup>42)</sup>, 安<sup>②43)</sup>崔<sup>④44)</sup>에서는 개사로 보고 있으며, 梁<sup>③</sup>에서는 접속사로 보고 있다.<sup>45)</sup> 不을 崔<sup>④</sup>에서는 조술사로 보고 있다. 대체로 金<sup>①</sup>의 분류는 상당히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있다. 품사설정에서 安<sup>②46)</sup>와 梁<sup>③47)</sup>에서는 數詞를 독립시켜 10품사를 설정하고 있으며, 崔<sup>④48)</sup>에서는 助述詞를 독립품사로 설정하여 10품사를 설정하고 있으나, 金<sup>①49)</sup>에서는 수사와 양사를 名詞에 포함시켜 9품사를 설정하고 있다. 數詞의 품사설정에 있어서 우리 국어에서는 數詞를 따로 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한어에서 數詞는 양사와 함께 쓰임으로서 名詞를 수식할 수 있는데 漢文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단독으로 문장성분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명사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0)</sup> 따라서 명사의 하위분류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助述詞는 동사를 도와 그 동사의 뜻을 완전하게 보완해주는 것으로 동사의 하위분류로 생각되어 따로 독립 품사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漢文科 學校文法에서 품사분류를 實詞는 名詞・代名詞・動詞・形容詞・副詞로 분류하고, 虛詞는 介詞・接續詞・助詞・感歎詞로 분류하여 9 品詞를 설정하고자 한다.<sup>51)</sup>

42) 金容傑, 앞의 책, 243쪽.

43) 安載澈, 앞의 책, 185쪽.

44) 崔相翼, 앞의 책, 41쪽.

45) 梁光錫, 앞의 책, 57쪽.

46) 安載澈, 앞의 책, 182쪽.

47) 梁光錫, 앞의 책, 32쪽.

48) 崔相翼, 앞의 책, 17쪽.

49) 金容傑, 앞의 책, 182-189쪽.

50) 金容傑, 앞의 책, 182쪽.

51) 고대한어에서는 수사와 양사가 다른 품사에 비하여 많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요하지도 않았다. 수사가 명사나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과 같이 변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고대한어에서의 수사는 명사와 그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명사의 하위분류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즉 현대한어에서는 양사가 많이 발달 되어 수사는 양사와 함께 쓰여야 비로소 명사를 수식하는 제한이 있어 일정한 영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 변별력이 있게 된다. 그래서 수사를 독립 품사로 설정 하는 타당한 근거가 된다.

### Ⅲ. 名稱의 問題

위의 표를 살펴보면 학자들에 따라 각 품사들의 명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등은 중국학자들과 우리나라 학자들, 국어의 품사명칭과 관련하여 공통성을 지닌다. 그러나 代名詞, 介詞, 接續詞, 助詞, 感歎詞 등의 품사명칭에 있어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품사들의 명칭에 대하여 위에 제시한 품사분류기준과 관련하여 타당성, 적합성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3-1. 代名詞

代名詞는 代詞, 代名詞, 稱代詞, 指稱詞 등으로도 명칭하고 있으며, 代詞의 명칭은 중국학자들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학자들은 代名詞의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국어에서 代名詞는 ‘명사를 대신하여 지시하는 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2)</sup> 漢文科에서 代名詞는 명사 뿐 만아니라 다른 語詞·語句(phrase)·語節(clause) 등을 대신 지칭하는 점에서 의미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sup>53)</sup> 代詞의 명칭은 學校文法에서 학습자에게 생소한 명칭이며, 代名詞는 學校文法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명칭으로 학습자의 개념적 혼란을 줄이는 방향에서 代名詞의 명칭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3-2. 介詞

介詞는 우리 국어문법에 없는 명칭이다. 介詞는 중국학자들의 대부분이 介詞의 명칭을 쓰고 있으나, 다만 『國文比較文法』에서 개사를 前置介詞, 後置介詞<sup>54)</sup>로 분류하고다.<sup>55)</sup> 또 『中國文法要略』<sup>56)</sup>, 『中國語法理

52) 이관규, 『학교문법론』, (월인, 2005), 130쪽 참조.

53) 金容傑, 앞의 책, 191쪽.

54) ‘之’를 領攝介詞로 보고 後置介詞로 분류하고 있다.(周遲明 『國文比較文

論』<sup>57)</sup>, 『中國文法講話』<sup>58)</sup>는 介詞와 接續詞를 關係詞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介詞와 接續詞는 그 기능과 용법이 다르며, 그 位置와 構造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품사로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漢文新講』은 介詞를 前置詞로 명칭하고 있으며<sup>59)</sup> 『漢文法大綱』에서는 介詞를 前置介詞와 後置介詞로 나누고 있고,<sup>60)</sup> 『漢文構造文法研究』에서는 介詞를 前置介詞로 명칭하고 있다.<sup>61)</sup>

介詞는 명사나 명사상당어구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의 앞이나 뒤에서 서술어를 수식하거나 보충하는 부사어나 보어의 통사기능을 하며 서술어와의 관계에 따라 場所, 時間, 對象, 道具, 原因 등을 나타내 주는 품사다. 前置詞라는 명칭은 인구어 문법의 명칭에서 차용한 것으로 어구를 구성하는데 그 역할이 있으며, 개사가 명사 앞에 온다고 하여 前置詞로 명칭 할 수는 없다.<sup>62)</sup> 개사는 명사와 동사류를

法』正中書局印行, 388쪽)

주어와 서술어사이 또는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사용되는 ‘之’의 품사설정은 학자마다 이견이 있다. 馬建忠(앞의 책, 414쪽), 王力(『漢語語法史』, 188-189쪽), 鄭愚相(앞의 책, 21쪽, 전치개사)등은 개사로 취급하고 있으며, 周法高(앞의 책, 125쪽), 劉景農(앞의 책, 222쪽), 黃六平(앞의 책, 185쪽) 등은 접속사로 보고 있으며, 寥振佑(『古代漢語特殊語法』內蒙古人民出版社, 1979, 183-198쪽), 易孟醇(앞의 책, 415쪽), 何金松(虛詞歷時詞典, 湖北人民出版社, 1994, 458쪽), 殷國光(『呂氏春秋詞類研究』, 華夏出版社, 1997, 353쪽), 楊伯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487-488쪽) 등 최근학자들은 구조조사로 취급하고 있다. ‘之’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놓여 이들을 所有나 修飾의 관계로 맺어주거나 주어와 술어사이에 위치하여 語句化기능을 하는 것으로 구조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세한 것은 拙稿 『三國遺事의 虛詞研究』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3, 47쪽, 191쪽 참조)

55) 周遲明, 『國文比較文法』, (正中書局印行), 388-404쪽 참조.

56) 呂叔湘, 앞의 책, 27쪽.

57) 王 力, 『中國語法理論』, 330쪽.

58) 許世瑛, 앞의 책, 32쪽.

59) 李家源, 『漢文新講』(서울 新丘文化社, 1960), 46-50쪽.

60) 文璇奎, 『漢文法大綱』(서울 汎學社, 1980), 73-74쪽.

61) 鄭愚相, 『漢文構造文法研究』(서울, 동아출판사, 1990), 20쪽.

62) 개사는 주로 명사나 명사상당어구의 앞에 놓여 서술어와의 관계에 따라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주거나 개사목적어를 강조하기

이어주고 의미실현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한문의 介詞의 개념과 前置詞, 前置介詞, 後置介詞의 명칭상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 중국학자들의 介詞의 명칭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3-3. 接續詞

接續詞는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이 連詞라고 명칭하고 있다. 接續詞는 語詞와 語詞, 語句(phrase)와 語句, 語節(clause)과 語節, 또는 文(sentence)과 文 등을 連結하는 品詞이다. 接續詞는 우리 국어문법에서 품사로 설정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접속사의 품사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sup>63)</sup> 漢文科 學校文法에서는 타 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接續詞의 개념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接續詞의 명칭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3-4. 助詞

助詞는 중국학자들이 助詞, 語助詞, 語氣詞 등의 명칭을 쓰고 있으며, 한국학자들은 助詞, 語助詞의 명칭을 쓰고 있다. 우리 국어문법에서도 助詞라는 명칭의 품사를 설정하고 있다. 국어에서의 助詞의 개념은 체언 뒤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것이다.<sup>64)</sup> 한문에서의 助詞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고 다른 성분에 의지하여 의미를 실현하는 품사로, 문두 문중 문말에 위치하여 語氣를 표시하며 성분사이에 쓰여 어구의 구성을 돕는다.<sup>65)</sup> 助詞는 구조조사와 어기조사로 나눌 수 있으며, 구조조사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놓여 이들을 所有나 修飾의 관계로 맺어주거나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하여 語句化기능을 하는 것이며, 어기조사는 문두나 문중 문말

---

위해 개사가 개사목적어 뒤에 오기도 한다. ‘腹以懷我 乳以哺我 以衣溫我 以食飽我’(『四字小學』)

63) 이관규, 앞의 책, 142쪽.

64) 이관규, 앞의 책, 138쪽.

65) 金容傑, 앞의 책, 242쪽.

에 위치하여 어기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66)</sup> 따라서 조사는 국어와 관련하여 오히려 학습자에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助詞의 명칭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sup>67)</sup>

### 3-5. 感歎詞

感歎詞는 중국학자들이 歎詞(嘆詞), 感字, 象聲詞, 感情詞 등의 명칭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中國文法講話』는 感歎詞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助詞(語氣詞)에 포함 시키고 있으며,<sup>68)</sup> 『漢語文言語法』은 助詞(語氣詞)안에 嘆詞와 應答詞로 나누어 포함시키고 있다.<sup>69)</sup> 중국에서는 歎詞 명칭이 제일 많이 쓰고 있으나, 한국학자들은 感歎詞의 명칭을 많이 쓰고 있다. 국어문법에서도 感歎詞가 품사로 설정되어 화자의 부름, 놀람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語詞로,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에 얹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므로 독립언이라 정의하고 있다.<sup>70)</sup> 한문에서 感歎詞는 정서감정을 나타내는 품사로 그 자체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나, 단독으로 쓰여 문장 전체의 정서적 감흥을 나타낸다.<sup>71)</sup>

應答詞의 경우 대답하는 성음으로 어기의 기능이 강하지만 감탄사가 감정을 표시하는 점에서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72)</sup> 국어에서는

66) 金容傑, 앞의 책, 243-249쪽 참조.

67) 助詞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拙稿 『三國遺事の 虛詞研究』 183-254쪽 참조. 필자는 조사를 구조조사와 어기조사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어조사라는 명칭이 문말의 어기만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한정된 감이 있어 구조조사와 어기조사를 포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조사의 명칭은 좀 더 넓게 확대해서 사용한 것으로 포괄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기조사는 한문의 특징으로 문두 문중 문말에 두루 쓰여 어기적인 표현의도를 나타낸다.

68) 許世瑛, 앞의 책, 32쪽.

69) 劉景農, 앞의 책, 106쪽.

70) 이관규, 앞의 책, 171쪽.

71)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拙稿 『三國遺事の 虛詞研究』 255쪽 참조.

72) 동일한 형태의 감탄사 일지라도 성조에 따라 나타내는 정서감정이 다르며, 전체 언어 환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感歎詞가 담화체계에서 시간적 공간적 분위기나 화자 청자의 기분에 따라 같은 성음이라

응답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한문에서는 정서감정을 성음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感歎詞의 명칭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學校文法에서 품사의 名稱은 너무 인구어문법 명칭이나 국어문법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초학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최소한의 어법지식을 갖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教育的 效果를 향상하기 위해 타고과서에서 쓰고 있는 명칭을 준용하여 학교문법에 품사의 명칭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 IV. 結論 및 提案

이상으로 學校文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品詞 분류기준의 문제와 명칭문제를 살펴보았다. 위 내용의 要約과 아울러 漢文科 學校文法 基準에 대한 방향을 提案하고자 한다.

漢文科에서 品詞연구는 중국의 『馬氏文通』에서 實詞와 虛詞를 통하여 품사를 분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후 많은 문법학자들이 품사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 學校文法은 學問文法이론의 체계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문법에 대해 많은 분류기준과 명칭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분류가 달라 품사이해에 혼란을 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어 문법에서 도입한 품사론을 직접한문에 대입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품사분류는 의미와 형태·기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문에서는 형태변화가 없어 형태를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의미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허사에 있어서 모순으로 보이며, 기능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실사에 있어서 모순을 보이고 있어 단일 기준으로 품사분류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문의 품사분류는 한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實詞와 虛詞

---

도 다른 감정을 표시할 수 있고 음성의 고저나 성조 등에 의해 전달되므로 應答詞는 감탄사와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의 실사와 허사의 구분기준이나 개념이 분명치 않아 실사와 허사를 기준으로 삼기에도 모순이 있었다. 따라서 실사와 허사의 변별 기준을 기존에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에서 문장 출현에 있어서 자립적으로 문장성분을 이루느냐의 여부에 따라 품사분류를 하면 명료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첫째로, 漢文科에서 品詞는 實詞와 虛詞를 기준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實詞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며 자립적으로 의미를 실현하여 문장성분을 이루는 자립성분이며, 虛詞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실사에 의존적으로 출현하여 문장성분을 이루는 의존성분이다. 즉 虛詞는 실사와 실사를 이어주고 실사의 의미실현을 돕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實詞는 다시 語詞의 의미에 따라 名詞・代名詞・動詞・形容詞・副詞로 분류하며, 虛詞는 문법기능에 따라 介詞・接續詞・助詞・感歎詞로 분류하여 9품사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로, 품사 명칭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代名詞, 介詞, 接續詞, 助詞, 感歎詞를 중국학자와 우리나라 학자들의 견해와 국어문법과 관련하여 타당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學校文法에서 代名詞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명칭이나, 漢文科에서도 명사를 지칭할 뿐 만 아니라 다른 語詞나 語句・語節 등도 대신 지칭하여 그 의미범위가 넓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혼란을 줄이는 입장에서 代名詞의 명칭을 쓸 것을 제안한다. 介詞는 우리 국어에 없는 명칭이나, 介詞의 개념과 前置詞의 명칭상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 중국학자들의 명칭에 따라 介詞의 명칭을 쓸 것을 제안한다. 接續詞는 타 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接續詞의 개념과 같이 하고 있으므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接續詞의 명칭을 쓸 것을 제안한다. 助詞는 국어문법에도 있는 명칭으로 국어와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助詞의 명칭을 쓸 것을 제안한다. 感歎詞는 정서감정을 소리로 표현하는 품사로 感歎詞의

명칭을 쓸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漢文科가 독립교과로 된지도 30년이 넘었다. 漢文科에서 학습자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볼 때, 빠른 시일에 漢文科 學校文法の 통일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學問文法の 체계화가 정립이 되었을 때 학습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漢文科 學校文法은 이러한 學問文法の 기초위에서 빠른 시일 안에 체계적인 문법통일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參考文獻>

- 金容傑,『漢文解釋方法』,教學社,2003.
- 崔相翼,『漢文解釋法研究』,강원대학교 출판부,1993.
- 安載澈,『한문과 교재연구 방법론』,박이정,2004.
- 梁光錫,『漢文文法論』,關東出版社,1999.
- 李家源,『漢文新講』,新丘文化社,1960.
- 文璇奎,『漢文法大綱』,汎學社,1980.
- 鄭愚相,『漢文構造文法研究』,동아출판사,1990.
- 이관규,『학교문법론』,월인,2005.
- 馬建忠,『馬氏文通』,商務印書館,1998.
- 王 力,『中國語法理論』『王力文集』第一卷,山東教育出版社,1984.
- 王 力,『中國現代語法』『王力文集』第二卷,山東教育出版社,1985.
- 王 力,『漢語語法綱要』『王力文集』第三卷,山東教育出版社,1985.
- 王 力,『漢語語法史』『王力文集』第十一卷,山東教育出版社,1984.
- 許世英,『中國文法講話』,開明書店,1966.
- 黎錦熙,『新著國語文法』,臺灣 商務印書館,1974.
- 趙元任,『中國話的文法』,學生書局,1987.
- 周法高,『中國古代語法(造句篇)』,台聯國風出版社,1972.
- 馬松亭,編著『漢語語法學史』,安徽 教育出版社,1986.
- 陳望道,『文法簡論』,上海教育出版社,1997.
- 陳承澤,『國文法草創』,商務印書館,1982.
- 呂叔湘,『呂叔湘文集』,商務印書館,1993.
- 楊伯峻,『文言文法』,中華書局,1963.
- 劉景農,『漢語文言語法』,中華書局,1994.
- 劉誠·王大年,『語法學』,湖南人民出版社,1984.
- 易孟醇,『先秦語法』,湖南教育出版社,1989.
- 黃六平,『漢語文言語法綱要』,華正書局有限公司,民國70.
- 寥振佑,『古代漢語特殊語法』,內蒙古人民出版社,1979.

何金松,『虛詞歷時詞典』,湖北人民出版社,1994.

殷國光,『呂氏春秋詞類研究』,華夏出版社,1997.

楊伯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語文出版社,1992.

周遲明,『國文比較文法』,正中書局印行,1987.

安載澈,「學校 漢文文法の 品詞 分類와 그 內容에 관한 問題」,『漢文教育研究』,2001.

金榮九,「虛詞의 概念的 性格과 그 範圍」,中語中文學 第八輯,1986.

鄭順泳,『三國遺事의 虛詞研究』,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2003.

鄭順泳,「‘文法成分’概念的 成立과 그 分類에 대한 考察」,『漢文古典研究』第七集,2003.

<ABSTRACT>

## The Subject of Classifying Parts of Speech of School Chinese Grammar and its naming

Jung, Soon-Young

This paper studied the standard and the naming of classifying parts of speech of school Chinese grammar. Also this paper proposed the direction for the standards are as following.

1. In classifying parts of speech of school Chinese grammar proposed classifying content words and function words. The content words represents practical meaning and meaning independently. Thus content words is component of independency composed of sentence. The function words don't represents practical meaning and function words appearing with content words is component of dependency composed of sentence. Thus function words connects contents words and contents words, function words supports meaning of content words. So, this paper propose that content words should be classify noun, pronoun, verb, adjective, adverb according to words and function words propose that should be classify in parts of speech Kaesa, conjunction, particle, exclamation according to grammar function.

2. This paper examined pronoun, Kaesa, conjunction, particle, exclamation in the naming parts of speech appear different opinion. The pronoun in school Chinese grammar is common naming using instead of noun and not only it in school Chinese grammar

represents noun, but also it has wide meaning such as word, phrase, clause. So, this paper propose that should be based on the reducing confusion of study. The Kaesa has not Korean, but definition of Kaesa and naming of preposition have differenc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 that should be use Kaesa according to naming of Chinese scholar and propose that should be use conjunction in the view point of the effect of education and the same meaning of conjunction using other subjects and propose that should be use particle in thinking of helping to trainers in related Korean as naming of Korean grammar. Finally, This paper propose that should be use exclamation as parts of speech emotion represents sounds.

Key words : school Chinese grammar, parts of speech, content words, function words

논문접수일	2006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06년 4월 20일